

축구·야구 우승 찍고 도쿄로… 남북 단일팀 감동은 계속

〈2020 하계 올림픽〉

2019 빅매치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의 향연은 계속된다. '손세이셔널' 손흥민을 앞세운 한국의 아시안컵 정상 도전, 단일팀 감동을 이어갈 1월 핸드볼 세계선수권, 실력으로 보여줘야 할 야구 대표팀의 프리미어12 등 '빅매치'가 2019년을 맞는다.

59년만의 아시안컵 정상 도전 (5일~2월 1일)

24개국 경쟁…첫 상금·비디오 판독 도입
손흥민·기성용 해외파 총출동 기대감 'UP'
베트남 박항서·북한 김영준 감독 성적 관심

남북 단일팀 재가동

남자핸드볼, 이달 덴마크 세계 선수권 참가
남측 16명·북측 4명 지난달부터 합동 훈련
세계 1위獨과 개막전…도쿄 올림픽 밑그림

야구 대표팀 프리미어 12 (11월2~17일)

2연속 우승 도전…1·2위 팀에 올림픽 본선 티켓
11월 2~8일 한국·멕시코·대만서 조별리그
이달내 감독 선임…3월 23일부터 KBO 리그



안치홍

◇한국축구 59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도전

'아시아 맹주' 한국 축구가 지난 59년 동안 되찾지 못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5일부터 2월 1일 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펼쳐지는 2019 AFC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아시안컵은 195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4년 마다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최고 축구 잔치로 우승팀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출전권을 준다.

24개국이 경쟁하는 이번 대회에는 처음 상금이 도입됐다.

우승팀에 500만 달러(약 56억3000만원), 준우승팀에 300만 달러(약 33억8000만원), 4강팀에 각 100만 달러(약 11억2600만원), 전체 참가팀에 20만 달러(약 2억2514만원)를 준다.

또 역대 처음으로 비디오 판독(VAR)도 도입했다.

한국은 자타공인 이번 대회의 유력한 우승 후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화려한 득점 행진을 펼치는 손흥민(토트넘)과 지난해 아시안게임 득점왕에 빛나는 황의조(강바 오사카)를 비롯해 대표팀에서 잔뼈가 굵은 기성용(뉴캐슬), 구자철,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등 든든한 해외파가 견재하다.

후방에는 차세대 중앙 수비수로 손꼽히는 김민재(전북)를 필두로 김영권(광저우 헝다), 김진수, 이용(이상 전북), 홍철(수원) 등 국제무대 경험이 풍부한 수비 자원이 포진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C조에 편성돼 필리핀(7일 오후 10시 30분)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12일 오전 1시), 중국(16일 오후 10시 30분)과 차례로 맞붙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과 35살의 '젊은 사령탑' 김영준 감독이 지휘하는 북한 대표팀도 출전한다.

박항서 감독은 올해 아시안컵에서 또다시 '박항서 매직'을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던 8강 이상의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최근 김영준 감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북한은 E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 등 쉽지 않은 상대와 상대한다.

북한은 1980년 4강이 역대 최고 성적으로, 2011년 대회부터 2019년 대회까지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한 만큼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담금질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해에도 남북 단일팀 감동은 계속된다

지난해 남북은 2월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12월 탁구 그랜드 파이널스까지 수차례에 걸쳐 단일팀을 구성해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을 만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이후 27년만인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성사됐다.

단일팀의 감동은 지난해 5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로 이어졌다. 탁구는 또 7월 코리아오픈과 11월 스웨덴오픈과 오스트리아오픈, 12월 다시 국내에서 열린 그랜드 파이널스 등에서 연달아 단일팀을 구성했다.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에서 남북 선수들이 힘을 합쳤고, 특히 카누 용선에서는 단일팀 사상 최초로 종합대회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뤄냈다. 한반도기가 시상대에 올라가고, 아리랑이 단일팀 '코리아'의 국가로 울려 퍼지는 장관이 연출됐다.

2019년 1월에는 남자핸드볼이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새해 단일팀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남북 단일팀은 남측 선수 16명에 북측 선수 4명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이후 28년 만에 성사된 남자 단체 구기 종목 단일팀이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북한 남자핸드볼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우리나라(세계 랭킹 19위)도 최근인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24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별리그에서도 개최국이자 세계 랭킹 1위 독일과 10일 개막전을 치르고 이어 세계 랭킹 4, 5, 6위인 러시아, 프랑스, 세르비아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019년은 또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해이기도 하다.

현재 남북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로 우리 측에서 지난해 11월 남북체육분과회담 때 단일팀을 이룰만한 종목 6~7개를 추려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은 지난달 종목 수를 더 늘려 남측에 답을 전달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는 지난해 시작된 남북 단일팀의 운기를 이어가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더 큰 감동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챔피언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연속 우승찍고 도쿄간다

2019년 가을, 야구팬들은 국가대항전의 뜨거운 열기에 빠져들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관하는 제2회 프리미어 12가 11월 2~17일에 열린다.

4년 전 초대 대회 챔피언인 우리나라는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당시 김인식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최대 난적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0-3으로 패색이 짙던 9회 기적과도 같은 4점을 뽑아 4-3으로 대역전을 거뒀다. 이어 결승에서 미국을 8-0으로 완파하고 우승 삼패인을 터뜨렸다.

WBSC는 지난해 12월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12개 야구 강국을 확정했다.

1위 일본을 필두로 2위 미국, 3위 한국, 4위 대만, 5위 쿠바, 6위 멕시코, 7위 호주, 8위 네덜란드, 9위 베네수엘라, 10위 캐나다, 11위 미국



손흥민

령 푸에르토리코, 12위 도미니카공화국이 출전 초대장을 받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 2장이 걸린 대회다 더욱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오세아니아 1위 팀과 아메리카대륙 1위 팀은 내년 대륙별 예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쿄올림픽 본선으로 향한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이 본선 티켓을 자동 확보했기에 결국 우리나라는 프리미어 12에서 대만, 호주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면 아시아·오세아니아 1위 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최상위 팀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직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우리나라는 마지막으로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의 신화를 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야구가 12년 만에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리나라는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인 프리미어 12부터 필승의 각오로 나선다.

12개 참가국은 4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 한국, 멕시코, 대만에서 11월 2~8일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1, 2위 팀은 라운드 로빈 방식의 슈퍼라운드 진출해 11월 11~16일 일본 지바현 조조 마린스타디움과 도쿄돔에서 격돌한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격돌한 팀들은 그 승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서 경쟁한다. 슈퍼라운드 1, 2위 팀은 11월 17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우승을 다툰다.

우리나라는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해 챔피언 벨트를 지킨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특례에 치우친 일부 선수들의 발탁 논란이 불거진 뒤 한국 야구는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운찬 KBO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 야구계는 본연로 치달았고, 결국 작년 11월 야구대표팀 첫 전임 사령탑인 선동열 전 감독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KBO 사무국은 프리미어 12를 비롯해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새 전임 감독과 선수를 뽑을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도쿄올림픽까지 한국 야구를 이끌 새 전임 감독을 늦어도 1월 안에 선임할 참이다.

우리나라는 프리미어 12에서 올림픽 본선 티켓을 확보하고자 3월 23일에 일찍 KBO 정규리그를 시작한다.

/연합뉴스